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5월 27일(주일) 제1198호



이번 주 러브소나타 샷포로!

5월 30~31일 샷포로 와쿠와쿠홀리데이홀
협력교회 70개, 봉사자 470명, 초대장 2,000장 발송

‘러브소나타 샷포로’가 이번 주 30일과 31일 샷포로 와쿠와쿠홀리데이홀에서 막 오른다. 30일에는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31일에는 한일리더십포럼과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가 열린다. 30일 기보노오카교

회에서 열리는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진호 장로가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이기복 교수가 ‘가정사역과 자녀양육’을 주제로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 와쿠와쿠홀리데이홀에

서 진행되는 가스펠나이트에서는 오오시마 시게노리 목사(KGK전국총주사)가 설교하고, New Hope 샷포로 가스펠홀라팀, 나가사와 다카후미, 스페셜밴드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31일 샷포로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한일리더십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교계 리더십 약 1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저녁에는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가 와쿠와쿠홀리데이홀에서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루,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등이 출연한다.

샷포로 현지 실행위원회와 서울 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현지에서는 총 세 번의 쉼기대회를 열고 러브소나타를 홍보했고, 70개 협력교회가 모였다. 초대장 신청 수는 2,000장이다. 러브소나타 서울 본부는 스태프를 포함한 한국인 봉사자 470명을 위한 참가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천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 및 착공식

지하 2층, 지상 4층 ... 선교의 장(場)으로 활용

인천 온누리교회를 건축한다. 지난 25일(금) 인천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 및 착공식이 거행됐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지 12년 만이다.

새로 건축하는 인천 온누리교회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넓이는 14,159.37㎡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1층 커뮤니티 공간, 차세대 예배실, 2층 대예배실, 차세대 예배실, 교회

사무실, 3층 대예배실 2층, 중예배실, 차세대 예배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4층은 식당 및 주방, 야외쉼터, 소모임실로 꾸밀 계획이다.

인천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 및 착공식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서경남 목사, 송동섭 장로 등 교회 리더십들과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25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건축되는 인천 온누리교회는 차세대를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

십으로 키우고, 주민들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새로 건축되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만 찬양받는 복된 예배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담당)는 “하나님께서 인천 온누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차세대와 청년, 다민족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마리아행전 참가자 모집

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사랑의 힘’을 주제로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다. 당일등록은 없다. 회비는 마리아행전 4만원,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2만원이다. 6월 20일까지 등록하면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마리아행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저녁 7시 30

분에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강의는 27일 이재훈 담임목사, 김영애 권사, 28일 벤 토레이 신부(예수원), 김성근 목사(노원한나라은혜교회), 29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지선 교수(한동대)가 한다.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에서는 27일 유기성 목사, 28일 이지선 교수, 29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3215-3667,

02-570-727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바울, Jump to the world’

차세대 전국교사강습회 6월 6일까지

2018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어드벤처 ‘바울, Jump to the world’가 한창이다. 지난 2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5월 26일 양재, 6월 9일 수원, 부천, 대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주일학교 교사

나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당일등록은 2만원이다.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교사강습회 어드벤처가 실시된다.

〈표참조〉

〈2018 차세대 어드벤처 일정〉

캠퍼스	일시
양재	5월 26일(토)
부천	6월 9일(토)
수원	6월 9일(토)
대전	6월 9일(토)
상해	5월 31일(목)~6월 2일(토)
북경	6월 1일(금)~4일(월)
청도	6월 3일(일)~5일(화)
호치민	9월 6일(목)~9일(일)

문의: 02-3215-3521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담임목사 동정

이재훈 담임목사는 6년 사역 후 3개월 안식기간을 가지는 교역자 인사 규정에 따라 올해 6-8월 안식월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동안 더욱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아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다. 지난 23일 아주 특별한 가족을 만났다. 이름하여 ‘한 지붕 세 권사’다. 정선희 권사(양지 온누리교회), 서승옥 권사(고양은평공동체), 최영기 권사(부천 온누리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시누와 올케, 동서지간이다. 제일 걸끄러울 수 있는 관계지만 셋이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꽃이 활짝 핀다. 어찌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오랜만에 모인 동창들의 수다보다 흥겹다. 성씨도, 성향도, 사는 곳도, 소속 공동체도 다르지만 끈끈한 하나님의 정으로 묶인 한 가족이다. 서로를 위해 한없이 기도해주는 세상 둘도 없는 동역자들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우리는 한 지붕 세 권사”

둘도 없는 동역자 정선희, 서승옥, 최영기 권사



하나님이 맺어준 한가족 정선희, 서승옥, 최영기 권사(왼쪽부터).

반가운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정선희, 서승옥, 최영기 권사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다. 정선희 권사가 시누이고, 서승옥 권사와 최영기 권사가 올케다. 서 권사와 최 권사는 동서지간이다.

정선희 권사는 5남매 중 막내다. 위로 오빠만 넷 있다. 큰오빠의 아내가 서승옥 권사이고, 넷째 오빠의 아내가 최영기 권사다. 정선희 권사는 남편 박대호 장로와 함께 안성농장에서 자연농법을 활용한 농사를 지으면서 선교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서승옥 권사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대일사역팀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최영기 권사는 남편 정영규 장로와 함께 부천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을 섬기고 있다.

각자 사역이 바빠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다. 이날 인터뷰도 어렵사리 성사됐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함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다. 모이자마자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가족들의 신앙과 간증

한 집안에 권사가 셋이나 되면 신앙이 얼마나 좋을까?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서승옥 권사가 한 지붕 세 권사 가족들의 신앙 역사를 들려줬다.

“저는 지식만 있었지 지혜가 없던 사람이었

어요. 지성적이고 분석적이었어요. 영성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우리 큰며느리가 교회 간 계 기적’이라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서승옥 권사는 시누이 정선희 권사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됐다. 정 권사가 서 권사에게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권유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도 정 권사가 인도했다.

“시누이가 시부모님을 계속 전도했어요. 그 간곡한 권유가 먹혀서 시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교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 권사가 전도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간증했다.

“제가 언니한테 자주 교회 가자고 하니깐 어느 날은 화를 내더라고요. ‘아까씨, 그런 얘기 할 거면 집에 오지도 말아요!’ 라면서요. 우리 집인데 오지 말라고 하는 언니랑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언니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냐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그때 ‘곧 큰언니가 하나님을 믿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영기 권사도 당시를 떠올렸다. 정씨 집안에 갓 시집 온 최 권사는 너무 지적이고 분석적인 큰형님(서승옥 권사)이 너무 무서웠다.

“큰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큰형님네가 집안의 머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버님과 큰형님이 신앙을 갖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누랑 같이 큰형님네의 구원을 위해 간

절히 기도했어요.”

최영기 권사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 결혼 전에 직장 다닐 때도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혼 후에 마음을 바꿨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스스로 교회에 갔다. 다행히 남편 정영규 장로는 시누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교회분란으로 실족하신 적이 있어요. 부모님을 다시 전도하는데 남편이 큰 역할을 했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반복했거든요.”

서로에 대한 첫인상, 시집왔을 때 느낀 점, 가족으로 묶이면서 겪은 에피소드,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까지 한 지붕 세 권사의 수다는 멈출 줄 몰랐다.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뻘 그랬지, 이뻘 그랬지’ 하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간증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노래 같은 간증이였다.

영원히 켜지 않는 동아줄

한 집안에 권사가 셋이나 있는데 장로도 둘

이나 있다. 그야말로 믿음 좋은 집안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무거운 숙제가 있다. 바로 ‘가족의 구원’이다.

서승옥 권사의 남편은 젊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동생네는 불교신자들이다. 그래도 세 권사는 낙담하지 않는다.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그라지지 않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무엇인가 달랐다.

“제 남편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제가 교회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저를 따끔하게 가르칠 때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CGNTV로 예배드리려고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부모님 추도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한 곡만 부르면 ‘찬송을 하나만 부르면 어떡하냐 더 불러야지’라고 해요. 시누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출석체크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정선희 권사도 의연하고 확고하게 고백했다.

“어릴 적에 큰오빠가 저에게 성경책과 구두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적 있어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을 때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큰오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큰오빠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혹자는 세 권사와 두 장로가 있는데 아직 전도가 안 된 가족이 있냐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권사, 두 장로가 있기에 전도 안 된 가족이 있어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든든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숙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해요.”

세 권사의 기도의 삼겹줄은 영원히 켜지 않는 동아줄이다. 그것만 있으면 가족 구원이라는 거대한 숙제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세 권사의 수다는 밤이 늦도록 이어졌다. 각자를 향한 사랑과 기도제목을 쏟아냈다.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와 정으로 묶인 끈끈한 유대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근원이고 고향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 온전해야 부모와 자녀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교육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어느 날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입니다”(엡 5:22~23).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남자에게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순종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높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총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몸이 머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가정의 축복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순종과 칭찬은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아내는 현명한 아내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과 칭찬을 통해 변화합니다. 지적이나 비난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아내의 섬김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결국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엡 5:25).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아내 앞에서 흠이 없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남편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에게 인생을 위탁한 연약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씻길 수 있고,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자녀가 아니라 아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아내보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닙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영적인 생활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부가 하나됨을 볼 때 안심하고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것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권위, 헌신하는 권위, 희생하는 권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메아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대하는 지에 따라 아내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의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은 <당신의 배우자를 이해하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섯 가지 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둘째, 비난하지 말라. 셋째, 관심을 보여 주라. 넷째, 부드럽게 대해주라. 다섯째, 함께 있어주라. 여섯째, 아내의 기분을 이해하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관심을 보여 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관심은 관심이 아닙니다. 아내가 말할 때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내들의 말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보다 마음과 기분, 느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고,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셋째,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속돼 있습니다”(1~3절).

성경은 부부관계를 이야기 한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이나 행동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돈이 들지 않지만 공경은 돈도 들고 수고도 듭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존경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느라 수고하셨고, 모든 것을 바치셨으니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

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마 7:11~13).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근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4절).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자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의 거친 말, 함부로 하는 말, 무시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들들은 아빠를 통해서 남자가 되고, 딸들은 아빠를 통해서 남성을 알아 갑니다. 아들들은 엄마를 통해서 여성을 알게 되고, 딸들은 엄마를 통해서 여자로 거듭납니다. 부모의 입술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기도하고 품어주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교정한다며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남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기도와 축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정의 전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가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대한다면 그 집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녀를 화나게 하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정의 위기

1. 소유권 다툼 '고부·장서갈등'
2. 사랑과 전쟁 '부부갈등'
3. 가정의 탄생 막는 '비혼과 만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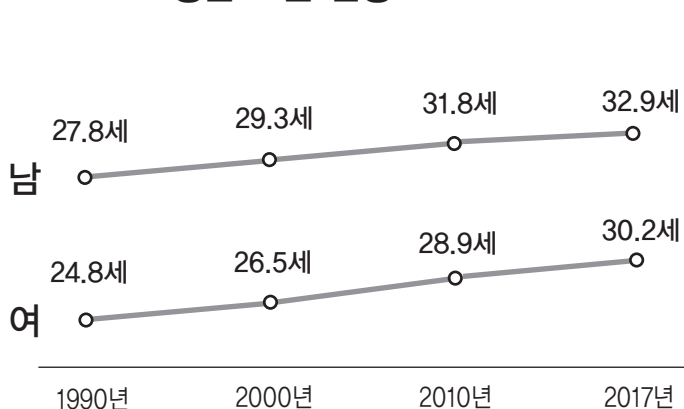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비혼’과 ‘만혼’ 뛰어 넘어 거룩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일단 만나고, 결혼매칭 프로그램 참여하고, 결혼을 배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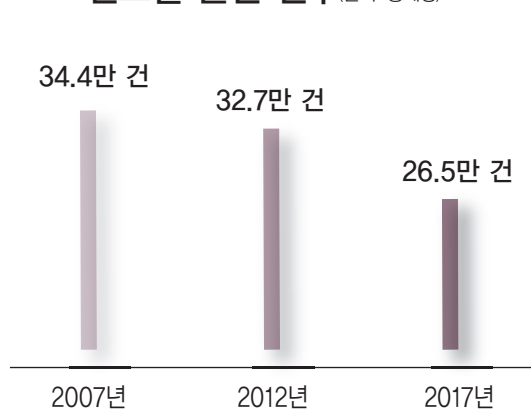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정은 둘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탓도 있지만 그만큼 혼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혼인율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비혼’과 ‘만혼’이다. 비혼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을 의미하고 만혼은 고학력, 얼어붙은 청년취업, 높은 집값과 물가 등의 영향으로 혼인시기가 늦어진 현상을 뜻한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지 않는 것은 가정의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제도와 비혼과 만혼을 진단해보고, 싱글들에게 세 가지 결혼지침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평균 초혼 연령(출처: 통계청)



연도별 혼인 건수(출처: 통계청)



당시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아무리 설득해도 결혼을 왜 해야 하고, 결혼하면 좋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결혼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결혼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결혼해서 좋은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혼자 신장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독신 추구하거나 늦게 결혼하거나

초혼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만혼(晩婚)이라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 동안 결혼한 초혼 부부 2천742명(1천371쌍)을 조사한 결과, 초혼연령이 평균 남성 35.9세, 여성 32.7세로 조사됐다. 2006년(남 33.4세, 여 30.4세)과 비교하면 남성 2.5세, 여성 2.3세 상승했다. 초혼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독신으로 살거나 결혼을 아주 늦게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G 자매(44세)는 20대에는 결혼보다 진로를 더 많이 생각했다.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되면 배우자 만날 기회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카 만난 H형제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놓고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결혼하면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부담감이 그가 독신을 추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

“현실적(경제적)으로 보면 제가 부족해 보여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결혼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싱글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비혼을 생각하는 미혼남녀에게 그 이유(복수응답)를 물었더니 미혼 남성 69.2%, 미혼 여성 67.9%가 ‘일과 개인생활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시대에 따라 가정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모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는 법률상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가족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호적제도가 시행된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가족은 중·소규모 가구 형태였다. 부부와 직계자녀를 중심으로 3~6명으로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핵가족의 모습이 엿보인다. 고려시대 가족은 ‘일부일처’에 기반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핵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되 부계나 모계친과의 동거 또는 혼인한 아들과 딸의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복합적 가정도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호적상 동거하는 가족구성원은 부계친보다 여계친이 훨씬 많았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같은 가족제도가 180도 달라진다. 신혼사대부가 유교의 문화질서를 도입하면서 가계계승이 ‘부자혈통계승’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조선은 ‘일부일처제’ 이면서 ‘처첩제’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가족제도는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가정은 둘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 구

성되어있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가족의 규모, 세대 구성, 자녀 수, 혼인과 이혼 및 재혼 등이 두드러진 변화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의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증이다. 1980년에는 ‘5인 이상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었다. 당시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은 5인 이상의 대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가족은 한 가구에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기능이 있었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를 기점으로 대가족이 사라지고 핵가족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1세기 접어들면서부터는 핵가족이 1인 가구로 또다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6%에 그쳤다. 지난 35년 동안 전체 가구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1~2인 가구 증가가 가장 가파르다.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이다.

비혼,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대별 가구구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이끄는 연령대가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6.5%, 2010년 29.1%, 2015년 33%로 치솟았다.

또한 미혼인 40~50대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00년 19%에서 2015년 29%로 1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 있는 40~50대 가구가 28%에서 26%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미혼 40~50대 가구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혼 40~50대 가구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때문이다. 올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 84.1%가 ‘결혼은 선택이다(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와 동일한 응답을 한 20대(86.7%)와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비혼은 20대 청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할까? 결혼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형제(43세)는 지금은 결혼할 마음이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독신주의자로 살았다. 그

했다. 그 다음으로 미혼 남성들은 경제적인 이유(47.5%), 미혼 여성은 결혼 후 자아실현의 어려움(46.5%)을 꼽았다. 부모가 보여준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S자매(49세)는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그 영향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정을 꼭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우자 만나는 노력

그래도 하나 보다는 둘이 낫다.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세우신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곧 하와를 창조하셨다(창 2:22). 그때 아담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리라”(창 2:23).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우



신 신성하고 복된 제도가 바로 결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32).

결혼에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결혼 전부터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관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위하여 싱글들이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 크리스천을 위한 세 가지 결혼 지침서를 소개한다.

첫째, 일단 만나야 한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한다. H형제도 온누리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이후 비혼주의였던 결혼관이 달라졌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정공동체를 사모하

게 됐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이끌 어주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욱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둘째, 교회에서 실시하는 결혼매칭 프로그램과 결혼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만큼 기회가 늘어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는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를 실시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크리스천데이트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을 배워야 한다. 가장 좋은 공부방법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요셉 작가의 〈결혼을 배우다〉, 김숙경, 황규복의 〈사랑에 다가서다〉를 추천한다. 건강한 연애가 무엇인지, 결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비혼과 만혼이 죄는 아니다. 따라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1인 가구 구성원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결혼을 배우다〉 이요셉 작가가 청년들에게



이요셉 작가
《결혼을 배우다》, 《육아를 배우다》 저자, 문화예술 아카데미 Tissue 대표

나는 결혼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도 무언가 준비가 되기 전에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졌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후에

야 결혼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먹은 후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결혼 후에는 내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모른다.

두려움을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남보다 결혼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는 말이 있다. 이상형의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을 상회한다고까지 말한다. 보통은 학벌과 외모, 직장과 집안을 보는데, 크리스천들은 신앙이라는 기준까지 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놓치고 싶

어 하지 않는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상형을 기다린다. 그래서 “아직 내 눈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 언젠가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질문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시거나 무능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만다.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 때 배우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보는 눈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남도 사명도 영혼도 생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제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청년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메일을 받았다. 나는 그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심정을 알 수 있으실까?”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 마음에 감춰진 것들, 차마 내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기도제목을 나누자고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차마 말 못하는 그것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내가 그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채워줄 거란다.

만남의 때가 너에게 급하다는 걸 안단다.

그것을 내가 너보다 잘 안단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 부모의 마음이 더 애틋하지 않겠니?

부모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더 서두르지 않겠니?

이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 안에 감춰진 귀한 배우자,

내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단다.

내가 나를 알 때에 그 사람을 깨달으리라.

내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인도한 그를 바로 알아보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단다.

내가 나를 알 때에 그 사람을 깨달으리라.

내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인도한 그를 바로 알아보게 될 거야.

말씀으로 아름답게 옷 입어서

네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 가져라.

그때가 오늘날이 내일인가

이 만남인가 저 만남인가 걱정하지 말렴.

너는 오직 나만을 구해야 한단다.

만남도, 사명도, 영혼도, 생명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만을 구하여라.

조급해 하지 말렴.

나는 사람의 일을 그렇게 이루지 않는단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 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지만

내가 이루는 일은 그렇지 않단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세워 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나를 구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뤄간단다.

이것이 나의 역사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기뻐한단다.

가장 든든한 친구 ‘농어촌선교팀’

29년 째 농어촌 미자립교회 찾아가 사랑 실천

농어촌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아 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있다. 바로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다. 농어촌선교팀은 벌써 29년 째 전국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지금까지 방문하고 지원한 교회만 200곳이 넘는다.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다녀간 농어촌 미자립교회에는 변화의 새싹이 움트고 있다. 전북 남원 갈계서부교회는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고, 경남 구미 명곡교회는 활력을 되찾았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농어촌 교회와 함께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전북 남원 갈계서부교회 김승택 목사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감동과 감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갈계서부교회는 전북 남원시 아영면에 위치해있다. 남원시 관할에 속해 있지만 남원시청에서 차를 타고 30분이나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마을에 있다. 지리산 톨게이트를 지나 너른 논밭을 따라 가다보면 갈계서부교회가 보인다. 김승택 목사는 2008년부터 갈계서부교회를 섬기고 있다. 부임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있었다. 교회 건축이었다. 당시 갈계서부교회 건물은 노후 되어 비가 오면 속수무책이었다. 창문도 말썽이었고, 겨울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술 잎차, 감자, 멸치, 청국장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 팔았어요.”

때마침 건축 설계를 하는 김 목사의 지인이 돈은 천천히 갖고 건물부터 짓자고 제안했다. 그 솔직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건물 빼에만 세워놓고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지인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체불된 임금은 건축 설계를 하는 지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오로지 김 목사와 교회 몫이 됐다. 김 목사가 직접 건축 자재를 구하고 인부를 고용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느라 교회를 완공하기까지 꼬박 3년이나 걸렸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생긴 빚은 2년 만에 다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소생할 힘이 없을 정도였다.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 준 이가 바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다.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 큰 사랑과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혼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활력을 되찾은 갈계서부교회(위)와 명곡교회(아래).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은 갈계서부교회와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결연도 맺어왔다. 그날 이후 갈계서부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인근 마을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갈렘공동체, 뮤지컬찬양팀, 영등포구로공동체가 매년 갈계서부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마을 주민들의 일손을 돕는 것부터 마을 잔치, 전도 등 갈계서부교회와 마을에 꼭 필요한 일을 해줬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꼭 찬 예배당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도 맺히더라고요. 아웃리치팀이 일손을 도와 준 주민 한 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열매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남원시 아영면에 소재한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은 갈계서부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들과도 소통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지역 교회들이 하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겨울 실시한 성경학교도 갈계서부교회와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4개 교회가 연합해서 개최했다. 올해 1월에는 남원시 아영면에 소재한 5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을 서울로 초청했다. 국회의사당,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주변 교회에서도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언제 또 오냐고 묻기도 하고요. 저희

들에게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김승택 목사는 농어촌선교팀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덕분에 다시금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세심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활력을 되찾은 교회도 있다. 경남 구미시 장천면에 위치한 명곡교회다. 명곡교회는 작고 아담하다. 양동훈 목사와 가족, 귀촌한 중년 부부, 평균 나이 80세 어르신 5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양동훈 목사는 2012년 명곡교회에 부임했다. 양 목사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교회 꼴이 말이 아니었다.

“우리창은 깨져 있고, 강대상에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전임 목사님이 10개월 정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교회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면 곳곳에 균열도 있었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2015년 가을 교회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움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교회 건물을 짓다말고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다.

“빨리 지어달라고 공사대금을 미리 줬는데 공사는 절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양재 온

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줬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강남D공동체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양동훈 목사가 양재 농어촌선교팀에 감사한 일이 또 있다. 양 목사는 자녀가 8명이다. 세 명은 낳았고 다섯 명은 입양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자녀 8명을 키우는데 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보내주고 있는 헌금이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쌀도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겨울옷도 보내주셨어요. 그 세심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 교회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은 1990년 ‘농어촌선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온누리교회 금흥사역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온누리교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 개보수 공사, 노후 교회 차량 및 선박 수리, 목회자 자녀 학자금, 목회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은 농어촌 교회 차세대들이나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나 아웃리치를 간다. ‘농어촌 차세대 서울 나들이’, ‘농어촌 교회 목회자 힐링캠프’, ‘윤형주 장로 초청 콘서트’, ‘온누리교회 부흥집회 초청’ 등이 그것이다. 또한 농어촌선교팀은 매월 1회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고, 매년 여름 의료선교팀 CMN 라파팀, 전도폭발팀과 함께 연합아웃리치를 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사랑이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현재 서빙고와 양재 농어촌선교팀 팀원은 각각 열 명 남짓이다. 농어촌 미립교회를 탐방하기에도 적은 인원이다. 함께 섬겨줄 동역자가 절실하다.

심길섭 장로(서빙고 농어촌선교팀)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목회와 신학>이나 <생명의 삶>을 보내줄 수도 있고, 한 다락방이 한 개의 농어촌 교회를 입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농어촌선교팀 예배

서빙고

일시: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지하 1층 카우보이실
문의: 010-3485-5893

양재

일시: 매주 주일 오후 2시 강의동 204호
문의: 010-9392-6265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온 누리에는 온누리가 필요합니다”

마포공동체 순장에서 기흥온누리교회 황우현 목사로!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기흥시 기흥온누리교회 황우현 목사다. 황 목사는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 순장출신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황우현 목사.

황우현 목사는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 안수 집사였다. 예배마다 선포된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주저 없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용인시 기흥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한 명의 동역자 가정과 함께 ‘기흥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기흥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와 무척 닮았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청소하는 장로를 볼 수 있고, 주일이면 상가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할머니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바로 그 교회다.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그 교회

기흥온누리교회는 제자양육을 목숨 걸고 하는 교회다. 주일예배가 끝나면 각자 준비해온 음식으로 만찬을 먹는 성도들은 어디론가 짝을 이루어 헤어진다. 교회가 좁기 때문에 교회 옆 카페에 모인다. 70세가 넘는 할머니 권사와 장로가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양육을 받은 집사와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을 양육하며, 또 양육이 끝난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며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이들도 할머니도 너무나 즐거워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대를 뛰어넘어서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

한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시간에는 초등학교 4, 5학년이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영아부와 유치부를 위한 교회학교를 시작한다. 어린이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 교재를 복사하고 준비물을 챙겨서 성경이야기와 <예수님이 좋아요>로 큐티를 한다. 또 출석표를 만들고 재미있는 활동도 준비해서 어린이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오는 젊은 엄마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한다고 한다. 주일 오후에는 고등부 오빠가 초등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고, 대학생 언니가 동생들의 공부를 도와준다. 기흥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눌 것 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에 푹 빠져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황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용조 목사의 말씀 중 하나가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했다. 이 가르침은 기흥온누리교회에서 ‘사명은 어린이도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살게 한다’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머니도 할 일이 있으니 삶에 사명의 꽃을 피워낸다.

황우현 목사는 마포공동체 홈페이지 관리자였다. 공동체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온누리 성경대학’ 팀장으로 섬기면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하용조 목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메시지를 들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목회자가 되었다. 어디에서 누구를 섬겨야 할지 찾던 중에 기흥과 화성에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제자 400여명이 떠올랐다. 황 목사도 청년 시절 그 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어서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김재언, 오세인 집사 부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였다.

“온누리교회 공동체처럼,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책도 함께 읽는 편안한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세대를 위한 교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자들은 안 오고 어린

이들이 먼저 오기 시작했다. 원래 교회가 있었던 곳에 태권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에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온 것이다.

“기흥온누리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조부모님 손에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기흥온누리교회는 ‘우리동네 도서관’이라는 방과 후 교실을 만들었다. 그 후 5년 동안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큐티 하고, 책을 읽고, 삶을 배우고 나누는 방과 후 교실이 열리고 있다. 우리동네 도서관은 오세인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동네 도서관 활동은 큐티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수학 공부도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역사수업도 듣는다. 아직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한자로 한글을 배우는 한자 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발음을 읽는다. 또한,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려를 실천하는 토론 및 논술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기흥온누리교회에는 역사교실, 한자교실, 로봇교실, 토론, 논술교실, 미술 문화 체험 등 보통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성도들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은사를 나누기 때문이다.

“누구 한 명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를 세워야죠. 그 성도 안에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만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이가 살아나니 그 부모가 살아나고 그 부모가 지켜있는 저를 살리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배운 제자양육입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성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세요.”

황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가 ‘7년 된 성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섬겨라’는 의미와 같아요. 꼭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살고 계시는 집 옆에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세요. 그곳에서 예배자로 함께 예배드릴 때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온 누리에는 온누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기고

“밧아도 좋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짊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최윤 교수가 러브소나타 샷포로를 앞두고 일본 선교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다. 일본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공연하는 그 순간,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사무치는 그 사랑에 또 한 번 눈물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져! 일본으로!

/ 편집자 주



최윤 교수
(불어예배, 서강대
불어불문과)

엔도 슈사쿠(1923~1996년)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는 장편소설 <침묵>은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다. <사무라이>, <내가 버린 여자>, <바다와 독약> 같은 엔도 슈사쿠의 다른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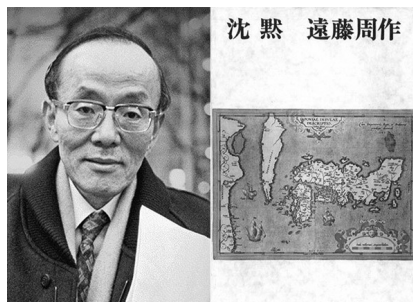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었지만, 그를 논할 때 <침묵>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그의 사후 20주년이 되던 2016년 미국의 저명한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지가 ‘사일런스(Silence)’라는 제목으로 <침묵>을 영화화함으로써 작가 사후 언급이 다소 뜸했던 이 작품이 재조명 받기도 했다.

순교와 배교에 대한 치열한 묵상

이 작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순교’에 대한 소설이다. 순교를 떠올리면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만감이 교차하는 쉽지 않으면서도 무수한 상상을 자극하는 단어이다. 아니, 오히려 ‘배교’에 대한 소설이라고 해야 할까 싶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표면 구조가 몇몇 배교자들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교의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각 나라의 상황과 시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단어의 울림은 천차만별이다. 기독교 역사에 박해가 멈춘 적이 없었으므로 순교는 기독교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순교에 대한 역사적 저술과 선교자료, 간증집 등 많은 글들이 이 주제에 바쳐졌고, 우리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수놓은, 지금도 수놓고 있는 무수한 순교의 사례들을 생각한다면 그 분량이 비례적으로 많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순교와 연관된 주제들은 대부분 전기(傳記)의 형태로 독자를 만나고자 한다. 순교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용기와 신앙의 깊이는 늘 믿음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어둔 밤을 지날 때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으며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을 다진다. 그러나 전기는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구조가 있어서 구체적이며 내밀하고도 격동적인 한 인간의 신앙드라마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순교자들은 주님이 특별한 목적



엔도 슈사쿠(좌)와 <침묵> 초판본(우).

으로 쓰시는 ‘선택하신 자들’ 이기에 그들 삶의 외적인 사건들이 영웅서사를 닮는 것을 독자들은 이해하며 또 기대한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시선이 머무르는 것은 그의 소설이 우리에게 실패한 순교자 즉, 배교자라는 반영웅적 이야기를 제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기독교 탄압이 절정을 향했던 일본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배교에 이르게 된 한 젊은 외국인 신부의 내면이 적나라하면서도 세밀하게 독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다. 단순하기에 가혹하다. 17세기 일본 나가사키현의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일본식 발음) 박해시대에 일본에 파송된 덕망 있는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소속 선교사 ‘크리스토폴로 페레이라’의 배교 소식이 로마에 전해진다. 페레이라는 실존 인물로, 박해의 절정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바친 성직자였다.

<침묵>은 페레이라와 당시 역사적 정황을 소설적으로 각색해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페레이라의 배교 소문을 전해들은 세 명의 젊은 성직자는 위함을 무릅쓰고 일본 열도에 침투해 들어가기에 이른다. 그들은 페레이라의 제자로서 그에게 배우기도 했으며 또한 존경했기에 열악한 해상여행을 감행해 마카오에 이른다. 그 중 한 명은 풍토병에 걸려 죽고, 두 명은 연약한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한 일본인 ‘기치지로’의 도움으로 일본에 도착한다.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페레이라의 배교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는 젊은 신부 ‘세바스티안 로드리고’라 할 수 있다. 에도시대 대순교(1623년)와 운젠의 기독교인 고문(1631년)에 대한 보고를 쓴 페레이라 신부처럼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신부 로드리고는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기독교 탄압과 고문에 대해 보고편지를 쓴다. 이 보고서가 작품의 전반부를 구성한다. 로드리고는 페레이라처럼 일본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을 신앙적으로 돌본다. 그러나 박해자의 가혹한 고문 앞에서 후미에(예수가 그려진 성화를 밧아 기독교인이 아님을 증명)를 밧음으로써 남은 생애를 배교자로서 일본에서 살아간다. 그의 스승 페레이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전철을 밟는다. 이 작품은 일본 선교 실패와 박해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편지인 전반부와 그 이후 일본의 기리시탄들과 박해 현장을 살아 가는 젊은 사제의 내면을 그린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을 배교로 몰았던 후미에에 대해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썼다.

“후미에란 ‘밧은 그림’이라는 뜻으로 배교의 상징이었다. 후미에를 밧으면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풀려났다. 그 위에 남겨진 발가락 자국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했다.”

일본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공연하는 그 순간...

소설 <침묵>은 나가사키, 운젠 등지에서 폭넓게 일어난 기독교 순교와 고문, 박해를 생생하게 묘사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증언의 글은 아니다. 그렇게만 읽는다면 박해와 순교에 대한 영상적 흑독함만이 강조된 영화 ‘사일런스’처럼 총격에 그칠 뿐 감동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 작품은 시종일관 한 사제의 신앙의 내면적 드라마를 시적인 문체와 묘사를 동원해 서술하기에 격렬하다.

엔도 슈사쿠는 <침묵>의 한 번역본 서문에서 이 소설을 “약자에 대한 신(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배반자를 용서하는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신”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오물통안에 거꾸로 매달리는 극도의 고문 앞에서 무너진 페레이라 신부도, 로드리고 신부도 모두 약한 자들에 불과하다. 여러 번에 걸쳐 배교를 거듭하고, 고해성사를 요청하고는 또 다시 배교자로 등장하는 일본인 기치지로를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리고 옆에 등장시키면서 작가는 이 두 인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을 박해라는 참혹한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성직자의 이야기로 읽을 때 작가의 진정한 전언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돌보는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하나하나 고문을 당하고 배교를 강요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다 신음하며 죽어갈 때, 마지막

남은 동료도 순교의 현장으로 뛰어들 때, 로드리고는 밧을 새워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강한 신앙의 고통 중간에서 부르짖는 그에게 하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이 작품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흔들림으로 두려움에 빠져 불면의 밤을 보내는 로드리고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님과 고통스러운 동행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는 페레이라의 권유와 노화한 취조자의 책략 앞에 마침내 무릎 꿇은 로드리고가 배교를 결정하는 순간에 있다. 후미에를 밧으려고 밧을 든 그 순간, 들려온 주님의 속삭임.

“밧아도 좋다. 네 밧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밧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밧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로드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고통이 필요했다”는 고백으로 로드리고는 그리스도와의 긴 침묵의 동행을 끝맺는다.

일본 관리의 요구에 부응해 일본 전통에 따라 죽은 일본인의 이름과 아내를 물려받고, 때로는 반기독교적 책을 집필하는 페레이라와 유사한 삶을 영위하는 로드리고. 그 또한 일본인 이름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로드리고의 삶은 이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두에게서 잊힌 채 죽어갈 삶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본에는 없는 원본의 말미에 부록처럼 덧붙여진 ‘기리시탄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침묵의 소리〉에 번역수록됨)는 흥미로운 사실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한곳에 모아놓은 이 주거지의 건조한 관리일지는 로드리고로 추정되는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 거주민들에 의해 그 안에서조차 비밀스럽게 포교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싹을 다 잘랐다고, 일본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공연하는 그 순간에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복음은 그 거주지의 어두운 그늘에서도 자라고 있었음을 저자는 기묘한 자료로 대신 말하고 있다. 아마도, 복음의 여정은 인간의 시간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의 여정임을 말하고 싶었으리라.

특별기고 어느 물리학자의 고백



권영현 교수
(창조과학회 이사, 한양대
응용물리학과)

최근 우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일련의 발견들이 보고되고 있다. 암흑 물질이 거의 없다고 관측되는 은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물성의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발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발견들은 소위 ‘우주론의 주류’라고 불리는 이론들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학자들 중에는 유물론자들이 많다. 그들은 신이 개입할 여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이 존재할 영역이 더 이상 없다고 단언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 즉, 우주와 창조자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철학은 죽었고, 그 영역은 발전된 물리학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우주의 행동에 대한 ‘어떻게’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무(無)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지, 우리가 왜 있는지 등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와 ‘왜?’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론물리영역에서 등

장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인본원리(Anthropic principle)였다. 다양한 인본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강한 인본원리’였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사실이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가능한 자연 법칙들의 형태까지도 제한함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주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이토록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가?”

이 불편한 사실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학자들은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다중우주란 각기 다른 법칙들을 지닌 수많은 우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우주는 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미세조정은 수많은 우주 중 하나에 우연히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과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중우주는 검증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다중우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우주를 버리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과학의 방법으로 확인 불가능 하지만 다중우주 개념이 과학이라는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 우주론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중우주를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발

견할 수 있는 것은 다중우주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 우주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우주는 무로부터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할 것이다.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우주의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우주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직시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관측하거나 실험하는 전문가들일수록 인정하는 것이 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관측 결과들은 이 분야 전문가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중이다.

현재 태양계 탐사를 위해 발사했던 ‘보이저 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태양계는 은하에서도 정말로 아주 조그만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은하계는커녕 태양계 외의 다른 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심지어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 지도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우주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일이다. 우주에 대해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무지와 오만이라는 표

현 외에 적합한 표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주에 대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까? 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도 거침없이 사용할까?

바울은 말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롬 1:28).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 인간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 같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죄악 됨, 범죄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셨음을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복을 입기를 소망한다.

살아 숨 쉬는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임장웅 집사
(남양주 은누리교회,
문화재해설가)

전라북도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시다. 일본은 전라도 지역의 쌀을 실어가기 위해 군산항을 개발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군산을 ‘쌀의 도시’라고 불렀다. 쌀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쌀값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미두장’과 각종 은행들이 있었다. 채만식의 소설 <타류>에는 당시 군산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일본인 ‘구마모토 리헤이’는 전라도 일대에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땅은 여의도의 12배가 넘었다고 한다. 그의 농장에는 3만 명의 조선인 소작농이 있었다. 그는 소작농들이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소득을 늘려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병들어 죽는 이들이 많아지자 이영춘 박사(1903~1980년)를 불렀다.

한국의 슈바이처 ‘이영춘 박사’

이영춘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박사



군산에 위치한 이영춘 박사 가옥.

이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영춘 박사는 구마모토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병원을 세워줄 것과 근무시간 외의 진료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구마모토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영춘 박사는 농장으로 와 소작농들을 성심껏 진료하면서 진료시간 외에는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치료하였다. 해방 후에는 병원을 세웠고, 보건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를 세워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이영

참 신앙과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순교자 아펜젤러 선교사

군산에는 아펜젤러 선교사(1858~1902년) 기념관도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암흑 같았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불의의 사고로 천국 간 순교자다.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린 성서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 충돌사고로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했다. 그는 17년 동안 교육과 봉사정신으로 한민족을 위해 헌신하다 4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기념관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 여행 때 사용하던 가족가방이 있다. 그 가방 안에는 암울했던 조선 민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는 것이다.

이영춘 박사 가옥과 아펜젤러 기념관에는 해설사들이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군산은 근대문화의 도시답게 수많은 근대문화 유산들이 남아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세관, 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을 둘러보면서 신앙의 참의미와 더불어 시간 속 여행을 하는 재미가 있다.

이영춘 가옥: 전북 군산시 동개정길 7
아펜젤러선교기념관: 전북 군산시 내초안길 12
(062-467-2478)



S브릿지공동체 7주년 기념예배에서 리더십들이 축하하고 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S브릿지공동체 창립 7주년 기념행사

33세~44세 미혼 청년들을 위한 S브릿지공동체가 지난 13일과 20일 창립 7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축제를 개최했다. 어제(26일)는 파주 DMZ와 헤이리 예술마을로 공동체 전체 수련회를 다녀왔다.

S브릿지공동체 창립 7주년 기념행사의 포문은 예배로 열었다. 지난 13일 ‘오직 은혜’를 주제로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멘토합창단, 혼성중창단, 남성중창단, 4중주 연주, 창립 7주년 축하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 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

리교회)가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끈질기게 기도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받는 S브릿지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축복했다. 20일 예배 후에는 기념축제가 막 올랐다. 다과와 게임, 포토존,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어제(26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S브릿지공동체 전체 수련회를 개최했다.

홍현주 순장은 “지난 7년은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화합한 시간이었다”고 했고, 윤여희 자매는 “연령과 가치관이 비

슷한 또래들과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눌 수 있어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미향 목사는 “S브릿지공동체의 지난 7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앞으로도 30~40대 미혼 청년들이 S브릿지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과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세례자명단

서빙고	서하운 150203
강민혜 860222	서철원 남궁필
김상열 401119	안도현 160609
김지희 820817	안재준 김지영
서경원 601225	안상현 171024
이정민 840123	안세훈 박수진
유아	원이안 160823
권이안 160524	원세연 김승민
권영현 강서은	이서용 170703
권이진 160524	이민 김혜숙
권영현 강서은	이하빈 161202
김은규 160928	이승문 전유정
김형중 김성민	정주는 170531
김이레 160722	정종철 박지연
김학민 김선미	조이현 161027
김하규 170911	조한빛 이현정
김정환 조은하	최은우 160802
박민우 170124	최형석 김민정
박관수 노에스터	최하연 160723
박주원 170310	최철현 임혜진
박성덕 조선경	
박해나 160907	
박성우 조경아	
유수아 170622	
유선우 안승구	
유지훈 160927	
유경우 신숙예	
이지율 160824	
이은모 오영수	
정준 160502	
정용규 이명하	
정찬 160502	
정용규 이명하	
지준태 171207	
지홍서 최지연	
채시안 170410	
채성민 강지윤	
한재이 170423	
한승희 김귀영	

도곡

유아

김지윤 160526

김인섭 김가연

대청

여호수아

박선영 910915

우예빈 890917

이슬기 940103

장미 860715

장임준 791202

정윤희 900705

최문정 840112

입교

최수진 851004

허브

조희연 960419

최진영 920725

양재

김형준 940205

송희정 771123

이승훈 820419

정연수 970108

정재현 780318

조진희 890228

최경우 750603

유아

김시호 160606

김장환 김상리

서태윤 170606

서철원 남궁필

Pole2

이종찬 990507

입교

윤시는 960527

탈북민 모녀를 위한 간이식 수술비 모금

사회선교부 하나원팀에서 탈북민 자매 A씨와 어머니 B씨의 간이식 수술비를 모금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에 온 A자매는 간경화를 앓고 있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병원에서는 간이식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B씨가 딸에게 자신의 간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수술비다. A자매는 한국 국적이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과 여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 B씨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술에 필요한 금액은 약 1천 5백 원이다.

후원: 하나은행 573-910008-39804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문의: 02-3215-3434

“덕분에 심을 얻었습니다”

이촌공동체, 6852부대 심지교회 아웃리치

지난 13일 이촌공동체 소속 성도 73명이 6852부대 심지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이날 예배는 이촌공동체 아웃리치팀과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실로암’, ‘주님을 향한 노래’, ‘예배합니다’를 부르는 것으로 시

작됐다. 이어서 육동건 장로의 대표기도, 전성혜 집사와 이은진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 김홍주 목사의 설교, 이촌공동체 성도들이 준비한 특송과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GUM 예배 ‘일터문화 강연’

6월 16일 서빙고 선교관 101호

일.하세. 아카데미 GUM 예배에서 지난 19일 ‘일터문화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권선정 집사(대금연주자)가 ‘시간의 벽을 넘어’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는 6월 16일에는 최윤 집사(소

설가, 불문학자)가 오전 8시 30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문학, 공감과 치유’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는 신청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문의: 010-6321-9522

창조과학 숲캠프 ‘숲에서 놀자’

창조과학 숲캠프 ‘숲에서 놀자’가 오는 6월 2일 오봉산 숲 체험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산 30-1)에서 개최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초등학교 1~5학년을 대상으로 ‘식물의 창조이야기’, ‘숲의 생태계’, ‘숲모험

놀이터’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건너편 신동아쇼핑센터에서 오전 9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문의: 010-6284-8479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류모세 선교사와 함께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총 3개 아카데미 코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 투어 1차는 7월 28일

부터 8월 3일까지, 터키-그리스 투어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 투어 2차는 2019년 2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4902-1022



샷포로 기·도·제·목

- 5월 28일(월)
- 5월 29일(화)
- 5월 30일(수)
- 5월 31일(목)
- 6월 1일(금)
- 6월 2일(토)

통관 과정이 잘 진행되고, 집회를 위한 최적의 상황이 되도록 한국과 일본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이뤄지길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재훈 목사님과 출연진, 참석한 일본인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집회 마무리가 잘 되고, 돌아오는 여정 길을 보호해 주시길 러브소나타를 통한 은혜가 불씨가 되어 일본 땅에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1197호) 10면에 게재된 기사 중에 오창화 집사의 소속이 미뽕울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9

우주 속의 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장차 성도들이 받아 누릴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의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 굳세게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할 뿐이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죽으면 영광스러운 최후에 상급을 받을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살게 되면 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주님의 부활은 실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창조 당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여 영원한 은혜 속에서 살 것임을 약속하는 역동적인 희망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세상, 불안과 동요, 처처에서 창검에 날카로움을 더해가는 죄악 된 세력들. 그러나 성도는 예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넘치는 여유와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설 수 있고, 이것에 의지해서 영생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끝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일의 승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신다. 늘 곁에 계셔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며 오늘의 절망과 위험 속에서도 굳세게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 믿음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함께 즐겨워하자.

축복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황혼의 조용한 시간에도 별빛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다. 평생 살아온 삶에 부여하신 축복이 눈물 나도록 많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다.

한 송이 꽃처럼

가을에 피는 꽃 한 송이가 되어 우아하고 아름답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다. 모든 꽃과 초목이 낙엽 되어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에 나는 한 송이 꽃이 되고 싶다.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웃음의 힘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 었도다. 그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 126:1~6).

입 안에 웃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독기가 가득 차 있으면 입 안에도 독이 차기 마련이다. 그래서 입만 열면 독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입에도 평안이 가득하고 웃음도 가득할 것이다. 웃고 즐기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보다 상처가 빠르게 치유된다. 통증치료사 데이비드 보레슬러는 환자들에게 한 시간에 두 번씩 거울을 보고 웃게 하는 처방을 내렸다고 한다. 웃으면 통증도 사라지고 감소되기도 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 16:24).

두란노 신간

결국 예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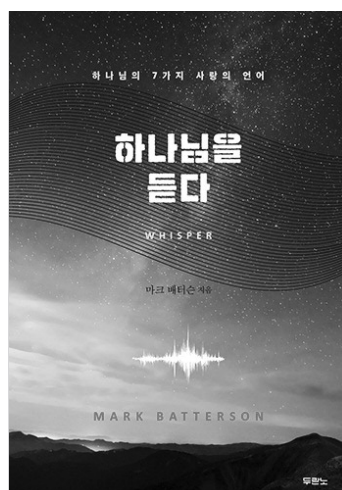
〈우리가 만날 예수〉
김지철 저 | 두란노 | 13,000원

“갈수록 살벌해지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따뜻한 마음, 공활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 아닐까?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결국 예수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김지철 목사가 〈우리가 만날 예수〉에 담았다.

저자 김지철 목사는 총 네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 닮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 네 가지 주제는 첫째,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둘째, 그분은 누구와 함께 계셨나. 셋째, 그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나. 넷째,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이다. 또한 〈우리가 만날 예수〉 각 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19가지 모습이 나온다. 그 모습을 보고 실제로 따라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성경읽기와 7가지 사랑의 언어



〈하나님을 듣다〉
마크 배터슨 저 | 두란노 | 13,000원

누구나 일상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듣다〉의 저자 마크 배터슨은 “하나님의 7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7가지 사랑의 언어는 성경, 소망, 열린 문, 꿈, 관계, 인도하심, 고통이다. 바탕은 성경 읽기다. 저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영적인 최고의 훈련이자, 이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7가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 관악금천공동체 순맞춤전도집회 간증



/ 국중대 안수집사(관악금천공동체)

저마다 믿음의 고백을

지난 12일, 관악금천공동체가 10년 만에 묵상의 집에서 두 번째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나는 이번 맞춤전도집회에 직장 동료 세 명을 초대했다. 5년 넘게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들을 맞춤전도집회에 초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했던 훌륭한 일꾼들이다. 하지만 막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 기회가 참 많았는데도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나의 한계이자 연약함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에서 맞춤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직장 동료 초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진지하게 기도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직장 동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시편 119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직장 동료들이 이번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했다.

관악금천공동체 맞춤전도집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며 저마다 믿음

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나와 함께 참석한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직장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쁨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영상편지 주인공이었던 한 동료는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씻어주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했다.

이번 맞춤전도집회는 초청된 전도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번 맞춤전도집회는 자체적으로 준비했다. 이는 곧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맞춤전도집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맞춤전도집회를 통해 관악금천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선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관악금천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한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하여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의료선교팀 CMN 아웃리치 후기



/ 우승엽 팀장(CMN 드림팀)

하나님의 선교

최근 몇 년 동안 아웃리치를 준비하던 중에 의료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팀장과 리더십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40여 명의 현지 사역자만 진료하고 섬기자고 요청하셨다. 그 요청을 받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고민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그 질문은 ‘의료선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만족하는 의료사역팀이 그동안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의료팀 스스로의 만족과 필요를 위한 선교를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봤다. 선교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야 함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선교사님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더욱 세심하게 준비했다. 수년 동안 현지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진료할 때 시간에 쫓겨서 사역자들과 말 한마디 나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료와 건강검진을 하면서 질환뿐만

아니라 사역과 기도제목 등을 물어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료선생님 두 분이 한 시간에 걸쳐 한 명의 사역자를 치료해 드리기도 했다.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진료였다. 모든 분들께 얼굴과 목마사지를 해드리고, 예쁘게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해 드리기도 했다. 세족식을 통해 그들의 거칠고 상처 난 발을 닦으며 함께 울기도 했다. 사역자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를 전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방문이 외롭고 고달픈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위로와 쉼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현지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특별히 초대받았던 자리’를 떠올리기를 소망한다. 이번 섬김이 그들이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추억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선교지의 필요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의료선교팀 CMN이 되기를 소망한다.

■ 통일위원회 산하 ‘살롬기도회’를 섬기며



/ 장형식 총무(살롬기도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롬기도회는 통일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통일, 북한,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이다. 살롬기도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을 드리고, 국내외의 정세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한다. 2개월에 한 번씩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많은 분들이 살롬기도회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 하신다.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하나님께서 이사가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일하실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것 같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고 우쭐대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민족이며 이방인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다. 그들의 피와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주께서 값없는 은혜로 이 민족을 구원하셨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오로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과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화다.

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일 목사님의 견해를 듣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그 세미나를 통해 통일을 위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 될 것이다. 또한 탈북민과 청년들이 이 모임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문의: 011-515-6174

■ 대학청년부 ‘멘토수련회’를 다녀와서



/ 김영우 멘토(여호수아공동체)

대학청년들을 위하여

나는 대학청년들에게 신앙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여호수아공동체 멘토로 섬기고 있다. 대학청년들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의식과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나는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 세대 간 이해 부족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큰 갈등을 만드는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멘토의 역할과 방향, 임무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그 매뉴얼은 모든 멘토들이 청년사역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멘토들이 대학청년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역자와 청년들이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멘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3개의 대학공동체와 8개의 청년공동체가 있다. 2011년까지

는 전체 멘토들 간의 교류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멘토와 공동체 간 협력을 위하여 멘토수련회를 시작했다. 5회째인 올해 멘토수련회는 ‘행복한 멘토들의 피크닉’을 주제로 진행됐다. 5월 12일 과천 로고스센터에서 열린 멘토수련회에는 88명의 멘토들이 모였다. 대학청년부 모든 공동체 멘토들이 교체하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았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11개 대학청년부 공동체 총무 멘토들이 서로 협력해서 행사 골격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게 된 효과도 얻었다.

7천여 명의 대학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멘토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멘토수련회가 대학청년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진행될 멘토수련회도 공동체 멘토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마지막 명령

이태열 장로
(마포공동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울이거나 디모데 같은 신앙이다. 전자는 바울 같이 어려움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우이고, 후자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갖고 주님을 만난 경우다. 나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고 그것들을 주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큰 폭풍우를 겪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전형적인 바울형에 해당된다.

나는 20여 년 전 많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마포공동체에서 믿음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나름 믿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았다. 한 발은 교회에, 또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초신자 수준이었고 그 수준에서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했다.

10년 전쯤 공동체 전도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다. 전도사역자가 되었지만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2년 동안 전도와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스트레스만 쌓여 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게 됐다. 그 순간 저 훈련만 받으면 그동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전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자리에서 신청했다.

훈련 시작부터 큰 충격에 빠졌다. 전도폭발 복음제시 전문에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전도대상자의 믿음 상태를 진단한다. 그 중 첫 번

째가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확신한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순장과 다락방장도 하고, 나름 열심히 믿음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나는 그날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도, 확신도 전혀 없는 믿음이였다.

2년 동안 전도폭발훈련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받으면서 점점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갔다. 아내도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2년 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회사 직원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열매는 실버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이호성 집사님이다. 공동체와 여러 사역에서 아내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고 계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지난해 전도폭발훈련에서 전도한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 작년 한 해 동안 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제자반, 양재팀에서 전도하기 위해 만난 전도대상자가 3,660여 명이였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1,470여 명이다. 결신율이 40.2%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전도폭발팀의 수고와 눈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전도! 믿는 자들의 최우선 관심 역시 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전도폭발팀은 전도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와 눈물은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권사칼럼

농어촌선교팀 덕분에

김경혜 권사
(분당B공동체)

나는 3년 전 임신빈 팀장님의 소개로 양재 농어촌선교팀에 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다. 내가 처음 농어촌선교팀을 접했을 때는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됐다.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어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농어촌선교팀에 발을 디딘 것을 잠시 후회하기도 했다. 농어촌선교팀에 오기 전까지 나는 발일도, 과일 따는 일도 해보지 않았다. 시골에서 하는 일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에 농어촌선교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이후로 농어촌선교는 나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농어촌선교는 철저한 헌신과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다. 농어촌선교팀을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팀장님, 성도님들은 농어촌 교회를 위해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농어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편하게 교회만 다닌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됐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농어촌선교팀을 섬기면서 그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 8월 아웃리치가 생각난다. 정말 무더운 날씨였다. 농어촌선교팀은 어느 농어촌 교회 목사님 사택을 수리하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는 힘들고 고된 일을 했었다.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봉사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옷을 벗고 일할 정도로 땀을 뻘

뻘 흘리며 무거운 장롱을 옮겼다. 많은 분들이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페인트칠과 주변정리를 했다. 권사님들은 부엌청소를 했다. 부엌에 있는 싱크대와 타일에는 설탕과 기름때가 뒤엉켜 있어 잘 빠지지 않았다. 막노동이나 다름없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불만이 없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다.

온누리교회는 섬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또 농어촌 교회라는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농어촌선교팀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작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 교회를 찾아가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도 드린다.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찾아가도 때도 있다.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도 교회에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설교하신다. 농어촌 교회를 탐방하면서 농어촌선교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다. 우리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농어촌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 농어촌 교회를 직접 찾아가 보면 섬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온누리교회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농어촌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농어촌 사역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농어촌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한번 탐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농어촌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올해 3월 산마루교회에 카페 ‘공간 산마루’가 문을 열었다. 나는 지난해 10월 이재훈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 온누리교회 여러 청년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산마루교회의 비전을 소개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산마루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고 요청했다. 이때 나는 ‘광야로 가자’는 설교를 했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삶, 그것은 모세처럼 소명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를 함께 이루어보자”고 청년들에게 권면했다. 카페를 운영할 사람도 필요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카페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

“카페 공간을 빌려 놓았는데 운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운영해보면 좋겠

습니다.”

그때 몇몇 청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이 카페 이름도 정하고 운영 계획도 세웠다. 청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카페 운영을 준비했다. 그들은 카페 오픈을 위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의견차로 고민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갔다. 직접 간판과 인테리어까지 했다. 공간 산마루! 카페 이름도 좋고, 간판 디자인도 훌륭해서 보는 이들과 감동을 받았다.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공간 산마루는 지난 3월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오픈하게 되었다.

카페 공간 산마루를 연 목적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소통하려 함이다. 또 교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간 산마루에서는 일대일 성경공부와 순모임, 영성만, 속회 등도 진행된다. 주일에는 애잔 공간으로 사용된다. 노숙인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

카페 ‘공간 산마루’

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모두 노숙인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

오픈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아직 이익은 창출되지 않아서 적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카페를 운영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일에는 노숙인들의 식사를 위해 봉사자들이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한다. 그들의 수고로 많은 노숙인들이 공간 산마루에서 식사를 한다. 노숙인들이 돌아가고 그곳이 깨끗하게 청소된 후에는 일반 성도들이 모인다. 교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또 그곳에서 영성만(순모임)모임도 진행한다. 함께 기도하고 영성일기를 나누며 주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 주중에는 인근 주민들도 방문한다.

최근 공간 산마루에 새로운 풍경이 생겼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커피 향 속에서 간단한 조찬을 하고 말씀을 나눈 후 출근한다. 어

느 날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 한 집사님이 공간 산마루를 방문하셨다. 너무 반가워 어쩔 일이나 물었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두 담임목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 시대를 잘 이끌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공간 산마루는 사랑과 소통의 자리로 세워지고 있다. 또 커피 맛이 일품이다.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런 커피와 분위기는 공간 산마루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준 온누리교회 모든 분들께 문안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로그온 IT사역팀 콘서트

일시: 5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로수위십(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

10길 43 엘로이벤 빌딩 지하 2층)

로그온 인스타그램: karosoo_worship

가로수위십예배 : 매주 화 저녁 7시 30분

문의: 이경희 사역자(02-3215-3651)

CMN 토보팀 해외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10일~15일

지역: 인도네시아 살라피카

회비: 150만원

모집: 치과 의사

문의: 김택수 팀장(010-8902-5987)

CMN 마노아 해외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11일~16일

지역: 인도네시아 람퐁

회비: 110만원

사역: 의료사역(약사 등)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CMN 드림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8일~13일

지역: 스리랑카 해튼

회비: 165만원

모집: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문의: 010-4230-1474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나침반 바이블

BIBLE

여호수아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약 <여호수아> '현실을 뚫어내는 영적 전쟁이야기'

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20분

강사 : 이재천 목사
(아름드리교회)



신약 <로마서>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

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20분

강사 :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매주 수 / 목요일 오전 8시 20분